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
(김용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517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9. 2.

발 의 자 : 김용민 · 황정아 · 위성락  
강유정 · 한준호 · 임미애  
주철현 · 이성윤 · 서영석  
민형배 · 김동아 · 박지원  
서미화 · 김 현 · 서영교  
전현희 · 장경태 · 김용만  
의원(18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AI 등 기술의 발전으로 일반인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누구나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게 되었음. 딥페이크 대상이 성인을 넘어 미성년자인 학생들까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어 청소년의 범죄 노출도가 높아진 상황임. 불법 합성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은, 당사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불법 촬영물과 다를 바 없음.

현행법은 불법 촬영물에 비해 딥페이크 합성물의 처벌 수위가 약하고, 소지·구입·저장·시청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. 딥페이크 합성물을 불법 촬영물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고, 소지·구입·저장·시청한자도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을 한 자를 불법 촬영한 자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고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·구입·저장·시청한 자도 처벌하고자 함(안 제14조의2).

##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2제1항 중 “5년”을 “7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5년”을 “7년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7년 이하의 징역에”을 “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”으로 하며,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(중전의 제4항) 중 “제3항까지의”를 “제4항까지의”로 한다.

-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·구입·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<p>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<u>5년</u>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p>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<u>7년 이하의 징역</u>에 처한다.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-----</p> <p>-----<u>7년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
<p>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.</p>	<p>③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u>3년 이상의 유기징역</u>-----.</p> <p>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·구입·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<u>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u></p> <p>⑤ -----<u>제4항까지의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